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 현장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울산의 3·1만세운동

울산의 3·1운동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으려는 울산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으로 1919년 4월 울산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다. 운동은 언양, 병영, 남창 세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경남의 다른 지역보다 늦은 감은 있었지만, 투쟁의 열기만은 높았다. 울산의 3·1운동 그 역사의 현장을 조명해 본다.

글·사진 박영민 기자

울산에서 태어나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평생을 살아온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외솔 기념관'.

울산은 크게 언양, 병영 및 울산 부내, 그리고 울산군 동면으로 나눌 수 있다. 지형적으로 언양과 울산 부내는 태화강을 끼고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면은 울산만을 중심으로 장생포, 방어진, 일산진 등 어촌을 가진 전통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울산군은 6만7597방리의 면적에 12만4343명의 조선인과 일본인이 거주했다고 한다. 거주자 중 일본인은 2만3193명으로 주로 동면의 방어리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했고, 조선인은 대부분 부내면 등 내륙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했다.

조선인 거주지인 언양, 병영, 남창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본격화됐다. 언양은 남부리 장날인 4월 2일, 병영은 4월 4일과 5일, 남창은 남창 장날인 4월 8일에 전개됐다. 울산의 3·1운동은 서울의 기미독립운동 소식과 독립선언문을 유학생들이 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언양 지역은 천도교 교단 세력이 중심이 되었고, 남창은 학성 이씨(鶴城李氏) 종중 세력이 주축이 됐다. 병영은 3·1운동 이전에 비밀결사 형태의 청년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청년회가 운동의 중심이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 의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동상과 조형물. 박상진 의사 생가 역사공원 내 기념동상마당에 조성돼 있다.

언양 3·1운동

언양은 울산에서 가장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주도한 것은 언양 천도교 신자들이었다. 1919년 당시 서울에 머물던 천도교 울산 교구장 김교경이 서울의 3·1운동 소식과 고종 독살 기사가 실린 국민회보와 독립선언문을 언양에 보내왔다. 이에 천도교인 이규장(李圭章)이 서울로 올라가 김교경으로부터 3·1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내려오면서 언양 3·1운동이 시작됐다.

언양 천도교인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뒤, 1919년 4월 2일 언양 장날을 만세운동 날짜로 정하고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았다. 이때 조직 연락과 동원, 그리고 선언문 등사 및 태극기 제작을 책임진 사람은 이규장과 이무종이었다. 이들은 상남면사무소의 등사판을 몰래 훔쳐 독립선언서를 찍고 태극기를 밤새 만들었다. 일제 경찰은 이를 눈치 채고 3월 31일 천도교인 최해규 최해식 형제와 곽해진 유철순 등을 사전에 검거했다가 풀어주기도 했다.

4월 2일 언양 바깥 장날, 언양 주위 각 면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만세운동 주동자들은 서부리 석남집(주점)에 거점을 두고 11시에 만세운동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장터를 돌아다녔다. 한편 만세시위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시장을 감시하며, 감시 대상으로 삼았던 한 청년을 주재소로 끌고 갔다. 이를 계기로 독립만세 외침과 함께 준비된 태극기를 흔들며 2000여 명의 군중들이 바깥장 나무전 자리(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340번지, 울산축산농협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이 주동 인물들을 언양 주재소로 강제 연행하자, 시위 군중들은 격렬한 투석전을 벌이며 주재소로 몰려갔다. 하지만 언양 성터에 올라간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시위 군중은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앞에 조성된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울주군 상북면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후대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비인 3·1독립운동기념비.

작천정 일대는 3·1독립만세운동의 흔적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당시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위한 사전 모임들이 있었다.

일제가 작성한 '조선 소요사건 상황'을 보면 "4월 2일 언양면 읍내에서 700여 명의 군중이 투석, 기타 광포 행위를 감행하였으므로 발포해 진정시켰다. 이것이 이(울산) 군에 있어서 소요의 시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제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언양 3·1운동 참여자 가운데 17명이 다치고 26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애국지사들 가운데 16명은 1년 6월에서 3월까지의 징역형(김낙수는 옥중 순국)을, 10명은 태형 90대의 처벌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

언양 3·1운동은 울산 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으로, 언양 지역의 천도교 신자들이 중앙과 연락하면서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주도했다.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언양의 청년들은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활발한 지역사회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외솔 기념관 내부 모습.

외솔 기념관 2층에 조성돼 있는 최현배 선생의 생가터.

병영 3·1운동

1919년에 울산 병영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서울로 유학 갔다가 귀향한 한명조 이영호 등으로부터 서울의 3·1운동 소식을 전해들은 병영청년회 회원들은 비밀리에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1919년 4월 4일 병영 장날에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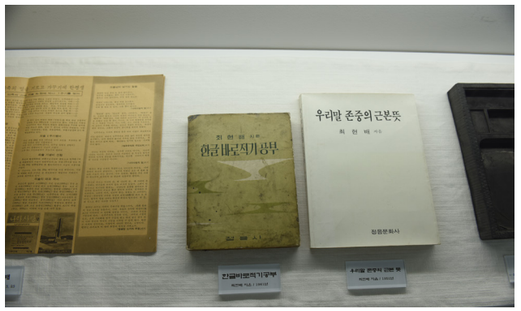
언양 3·1운동이 일어난 지 이틀 후인 4월 4일 일신학교(현 병영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과 병영청년회 회원들이 축구공을 높이 차올린 것을 신호로 병영 3·1운동이 시작됐다. 병영청년회 회원 주도로 서리, 동리, 남외리 등 병영지역을 돌면서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자 많은 군중이 이에 합세했다. 서리에 있던 하상면 주재소의 연락을 받고 울산경찰서의 경찰과 수비대가 출동하면서 시위 군중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검거돼 울산경찰서로 연행됐다.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해산한 청년들은 다음 날인 4월 5일 일신학교 근처에 모여 사람들을 모은 뒤 만세시위를 벌였다.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주재소로 몰려간 시위대는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들을 포위했다.

이에 일제 경찰이 실탄 사격을 가해 그 자리에서 엄준주사문이 사망하고, 중상을 입었던 문성초 김응룡도 얼마 가지 않아 사망했다. 이 외에도 이 시위로 40여 명이 검거됐고, 이들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 또는 태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에는 출옥 후에도 기미계를 조직해 병영 3·1운동으로 순국한 이들의 추모제를 지내며 항일의지를 이어 나갔다.

이처럼 병영 3·1운동은 1919년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이어진 독립만세운동으로 병영지역청년회가 중심이 돼 주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던 운동이다.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청년운동과 교육운동 등 1920년대 병영지역의 민족운동을 주도했다.

강습소를 설치해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수리조합 반대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울주군 청년동맹, 신간회 울산지회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외솔 기념관 앞에 조성돼 있는 최현배 선생 동상.



최현배 선생이 만드신 한글 관련 도서들.

병영성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병영초등학교 담에 조성돼 있는 각종 사진들.

박상진 의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벽화.

병영초등학교 교정에 조성돼 있는 병영3·1운동기념비.

남창 3·1운동

1919년 울산 남창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운동으로, 울산 지역의 대표적 유림인 학성 이씨 문중이 주도해 일으켰다.

1919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에 살고 있던 이재락(李在洛)이 고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3·1운동을 목격하고 울산으로 돌아와 학성 이씨 문중 사람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함께 3·1운동 소식을 전했다. 학성 이씨 문중의 원로 8명이 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결심하고 남창 3·1운동을 주도했다.

학성 이씨 문중 8명의 원로는 4월 8일 남창 장날에 맞춰 거사를 준비하고 통고문을 만들어 3·1운동을 주도했다. 이에 이수락 이희계 이쾌덕 이용락 등 마을 청년들도 거사를 결의했다.

거사일을 4월 8일 울주군 온양면 남창리 장날로 정하고 동지를 규합했다. 4월 7일 밤 이수락 이희계 이쾌덕 이용락 이쾌경 등 5명은 이용락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4월 8일 남창리 장에 장꾼들이 모여들자 오후 4시경 일제히 독립만세를 불렀다.

수백 명의 장꾼이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연호했으며 일본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이수락 이쾌덕 이희계 이쾌경 등을 검거했다. 피신해 있던 이용락이 광목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단 장대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자 고기룡이 받아들고 시위 군중을 지휘했다. 깃발을 뺏기 위해 일본 경찰이 고기룡을 구타하고 총을 쏘아대자 시위 군중들은 흩어지게 됐다. 이수락 이쾌덕 이용락 이중걸 고기룡 등 12명이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중 2명은 징역 1년, 6명은 징역 6개월, 1명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남창 3·1운동은 울주군 온양면과 웅촌면 등에 집성촌을 이뤘던 학성 이씨 문중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독립운동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료제공 울산광역시청)

광복회 총사령을 역임한 박상진 의사 생가. 입구 앞에는 박상진 의사 기념비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상이 조성돼 있다.

BOX

최현배 선생 기념관

울산은 한평생 교육자로, 한글학자로, 독립운동가로 살아온 외솔 최현배(崔鉉培) 선생의 고향이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에 최현배 선생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기념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 사업이 추진됐다. 기념관 건립 사업은 최현배 선생 생가를 2001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39호로 지정한 후, 2002년 10월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은 2009년 9월 30일 준공해 2010년 3월 23일 개관했다. 원래는 최현배 선생의 생일 날짜인 10월 19일에 맞춰 2009년 10월 19일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신종플루 확산으로 대규모 행사가 제한돼 미루어지게 됐다. 2013년 9월 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됐다.

대지 면적 3646㎡, 총면적 852.37㎡의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외솔실·한글실·영상실·체험실이, 2층에는 모듬실·외솔최현배선생생가터가 있다. 전시실인 외솔실과 한글실에는 유족과 한글 관련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우리말본』·『한글갈』·『조선민족갱생의 도』 등 일반 서적 1만여 권과 최현배 선생

이 생전에 사용하던 타자기와 장롱 등의 생활 유품이 전시돼 있다. 체험실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스탬프 찍기와 탁본 떠보기, 틀리기 쉬운 한글 받아쓰기가 마련되어 있다. 2층에 있는 외솔최현배선생생가터는 집터와 축대만 남아 있던 생가를 2008년 복원하였으며, 안채와 아래채, 부속채로 구성되어 있다.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과 1월 1일, 추석, 설날 당일은 휴관한다.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박상진 의사 생가 기념관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에 있는 조선 후기 가옥으로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 의사의 생가와 기념관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역사적인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박상진 의사 생가는 마을 입향조인 괴천(槐泉) 박창우(朴昌宇)의 후손인 박헌복이 분가한 무렵인 19세기 중반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채 이외의 건물은 일제강점기와 1980년대에 크게 수리해 변형됐다가 문화재 지정 이후 보수 정비가 이루어져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사랑채와 안채, 대문간채 등 모두 7부분 4동으로 이루어졌다. 각 건물은 모두 3량 구조로 지붕 형식은 안채와 곳간채가 팔작지붕이고, 나머지는 맞배지붕 형식이다. 평면 규모는 사랑채와 곳간채가 정면 4칸, 안채 정면은 7칸, 나머지 건물은 모두 정면 5칸이고 측면은 모두 1칸이다. 남향으로 자리 잡았는데, 안채와 날개채는 'ㄱ'자 모양을 이루고 곳간채, 아래채, 사랑채는 'ㄴ'자 모양을 이루어서 전체적으로 큰 'ㅁ'자 모양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대문간이 사랑채 전면 남쪽에 동서 방향으로 있고, 대문간이 있는 남쪽을 제외한 세 방향으로 나무들이 둘러서 있다.

집안의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후 박상진 의사 집안은 몰락했으며, 박상진 의사 생가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2002년 울산광역시는 박상진 의사 생가를 매입해, 2007년 복원 정비를 마무리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말끔하게 정비되어 일반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7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5호로 지정되었다.

박상진 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울산의 대표적인 항일 운동가이다. 울산 북구의 대지주로 전 재산을 독립 자금으로 사용하여 생가마저 남의 손에 넘겨야 했던 지난날의 회한이 담긴 공간이다. 울산광역시에서 박상진 의사 생가를 복원하여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